

뉴스홈 | 최신기사

-테니스- 윌리엄스 자매, 나란히 '승리 합창'

송고시간 | 2008-11-06 07:42



-테니스- 윌리엄스 자매, 나란히 '승리 합창'

(서울=연합뉴스) 김동찬 기자 = '흑진주' 비너스(8위)-서리나(3위.이상 미국) 윌리엄스 자매가 여자프로테니스(WTA) 시즌 마지막 대회인 소니 에릭슨 챔피언십 예선리그에서 나란히 이겼다.

비너스는 6일(한국시간) 카타르 도하 칼리파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예선 마룬그룹 2차전 엘레나 데멘티예바(5위.러시아)와 경기에서 2-1(6-4 4-6 6-3)로 승리해 2연승을 거뒀다.

GS SHOP

특급 혜택 받으세요!

5,000

10,000

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동생 서리나도 디나라 사피나(2위.러시아)를 2-0(6-4 6-1)으로 완파하고 첫 승을 올렸다.

마룬그룹에서는 비너스가 2승으로 예선 통과를 눈앞에 둔 반면 사피나는 2패가 돼 탈락 위기에 몰렸다.

화이트그룹에서는 베라 즈보나레바(9위.러시아)가 아나 이바노비치(4위.세르비아)를 2-1(6-3 6<5>7 6-4)로 꺾고 역시 2연승을 달렸다.

6월 프랑스오픈 우승 이후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지난달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WTA 투어 제네럴리 레이디스 단식 결승에서 즈보나레바를 2-0(6-2 6-1)으로 따돌리며 우승컵을 품에 안았던 이바노비치는 이번 대회에서 2패를 당해 예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.

이바노비치는 "목이 부어올라 요 며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숨도 쉬기 힘들었다"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.

올 시즌 상위 8명만 출전해 예선리그를 거쳐 우승자를 가리는 이번 대회에는 총상금 455만달러가 걸려 있으며 단식 우승자에게 134만달러를 준다.

emailid@yna.co.kr

관련기사

- 테니스- 톱 랭커 안코비치, 이바노비치 꺾고 첫 승
- 테니스 세계 최강 가리자..남녀 최종전 4일 개막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1/06 07:42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

1010회

모토 당첨결과

9

12

15

25

34

36

+

3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'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"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가원전 2-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브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.

GS 칼텍스

제19회 International Green Energy Expo & Conference

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

PV · ESS · Battery · WP · FC · Smart Grid · Renewables

2022. 4. 13(수) ~ 15(금) · 대구 EXCO

건강하고 소중한 내 아이의 첫 보형

무엇보다 무조건 국내산 안전지킴이보형

무엇보다 보형



coway

코웨이 아이콘정수기





100주년
건국 100주년
여가를
만가만

Samsu News

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[영상] 입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...누가 학대했나

▶ 02:22

[영상] 곡사포-수송헬기-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
결국 우크라이나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
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We Do Technology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-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상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- 뉴스



마스크만 빼고...'사회적 거리두기' 2년1개월 만에 사라진다

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"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맹"

'엄중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1 김건희 여사 팬카페,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
145

2 '유퀴즈'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"(종합)
66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
61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 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동 재개 예정?
56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"
40

뭐하고 놀까? #홍→

뉴스홀	최신기사	정치	북한	경제	산업	사회	전국	세계	문화	라이프	연예	스포츠	오피니언	사람들					
비주얼뉴스	영상	포토	화보	#D	그래픽							뉴스 상품	프리미엄뉴스	뉴스리더	인타넷맞춤형	보도자료	해외배포	보도자료 국내배포	
테마별뉴스	핫뉴스	톱뉴스	주요뉴스	긴급뉴스	단독뉴스	많이본뉴스						출판물	이매진	연합연감	영문연감	한국인물사전	단행본	월간 미디어스	
뉴스+	이슈돋보기	팩트체크	재난포털	날씨	주요신문	톱뉴스/사설	이시각	헤드라인				광고	KTX 열차	AREX 공항철도	모바일	PC/홈페이지	출판물		
모바일 뉴스	모바일웹	모바일앱										콘텐츠 판매	보도사진	이미지	그래픽	동영상	인물		
외국어	English	中文	日本語	عربي	Español	Français						관련사이트	연합뉴스TV	인포맥스	한민족센터	K컬처기획단(K-ODYSSEY)	채용	IR 클럽	#총

개인사/제휴문의